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열린 교육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윤 화 경

#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열린 교육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윤 화 경

# 인 준 서

윤화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시대 이후 과학의 발달로 사회는 점차 세분화, 전문화, 고도화 되어 가면서 기존의 모더니즘적 사고방식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교사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학습자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이런 인식의 전환에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였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 인식자와 분리된 것, 외적 실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지식 이론과는 다르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아는 것을 구성한다고 본다. 즉, 인식론의 변화로 객관주의 인식론에서 구성주의 인식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미술교과가 구성주의적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학습이론이나 학습원리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교과임으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열린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IV장에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전제하에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을 제시하였다.

열린 교육은 단순히 교실 벽을 허물고 색다른 방법으로 지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교육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움직임으로 교육이 학생중심으로 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러한 교육개념의 변화는 교수-학습 활동의 형태와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열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열린 교육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나 교사의 부담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열린 교육이 내세운 학습 원리들은 우리 미술교육이 열린 미술, 삶과 하나 된 미술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구성주의 미술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성주의 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현장 교사들은 미술교육에 있어서 열린 교육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 및 실천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 서론</b> .....	1
1 . 연구 목적 및 내용 .....	1
2 . 연구방법 및 범위 .....	2
<b>II .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 연구</b> .....	4
1 . 구성주의의 시대배경 .....	4
1) 인식론의 변화 .....	6
2)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	11
2 . 구성주의 측면에서 본 교육의 유형 .....	14
1)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 .....	14
2)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 .....	17
<b>III .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열린 교육</b> .....	23
1 .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의 연계....	24
2 . 구성주의에서의 열린 교육 가능성 .....	27

<b>IV . 미술교육 변화의 방향</b> .....	31
<b>- 열린 교육</b>	
1 . 열린 교육의 정의 .....	31
2 . 열린 교육의 필요성 .....	34
3 . 열린 교육을 통해 본 미술교육의 방향 .....	37
<b>V . 결론</b> .....	43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 표 목 차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차이점 .....	9
<표 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특징 비교 .....	12
<표 3>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교 .....	18
<표 4> 전통적인 교육, 열린 교육, 구성주의의 비교 .....	30

# I . 서 론

## 1 . 연구 목적 및 내용

사회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교육도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다.

산업시대 이후 과학의 발달로 사회는 점차 세분화·전문화·고도화 되어 가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기존의 모더니즘적 사고방식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서구에서 제기된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 변화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좀 더 새롭고 폭넓은 인식의 확장을 요구하며, 그 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삶에 관한 모든 면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인식론적 한계에 대한 반성의 배경과도 맞물려 미술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런 총체적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것에 대한 수정·보완과는 분명 구분되는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은 절대적 관점보다 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고, 즉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가 보다는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구성주의는 개인의 학습의지와 효율적인 지식의 구성에 관심

을 가지며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미술교과에 매우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 7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패러다임 속에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본 연구자는 열린 교육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자는 우리 미술교육의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에서 구성주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기초한 미술교육, 즉 교사 중심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구성주의가 도래하고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배경과 구성주의의 교육의 유형에 관해 살펴봄으로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하였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와의 연계성에 대해 전개하고, 그 속에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열린 교육 실현을 구체화 시켰다.

셋째, 미술과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전제하에 미술교육에 있어서 열린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열린 교육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 알고, 열린 교육을

통해 본 미술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에 관하여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미술 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열린 교육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배경으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그런 인식의 전환에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제 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흐름에 맞추어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본 연구자는 열린 교육을 제시하였다.

## Ⅱ .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 연구

### 1 . 구성주의의 시대배경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존 지식의 노후화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생활, 문화, 교육 등에 걸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Ole Sand는 인간의 지식, 정보가 서기 원년을 기준으로 1750년에는 제2의 배증, 1950년에는 제3의 배증이 있었으며 제4의 배증은 불과 10년 후인 1960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드러커(Drucker, 1909~2005)<sup>1)</sup>는 서기 1450년부터 1950년까지 600년 동안 출판된 인쇄 매체의 총량이 1950년 이후 약 25년 간 출판된 인쇄 매체의 총량과 같다고 하였다. <sup>2)</sup>

이같이 지식이나 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식의 유효기간은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기존 교육방법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는 새로운 이론은 아니다. 구성주의 근원은 칸트(Kant, 1724~1804)<sup>3)</sup>의 인식론<sup>4)</sup>으로부터 볼 수 있고, 피아제의 이론을 응용

---

1) Peter Ferdinand Drucker, (1909~2005), 오스트리아 경영학자. 빈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1933년 런던에 이주하여 경영평론가가 되었다. 1937년 영국 신문사의 재미통신원으로 도미하여 학자 겸 경영 고문으로 활약 하였으며, 뉴욕대학교 경영학부 대학원 교수가 되었다. 현대를 대량생산원리에 입각한 고도산업사회로 보고, 그 속에서 기업의 본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관리의 방법을 전개하였다.

2) 장인애, 황윤환 외7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 문음사, 1999), p. 44.

3) Immanuel Kant. (1724~1804), 독일의 철학자. 1755년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 철학 교수 이며,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그 이후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였다. 《순수이성비판》, 《실천

하여 구성주의라 부르기도 하며, 더 멀게는 1700년 초 지식의 구성에 관한 논문을 쓴 비코(Vico, 1668~1724)<sup>5)</sup>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또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배경은 지식의 의미 구성에 있어 맥락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다양한 시간의 타당성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sup>6)</sup>이론에서 찾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구성주의는 17세기 이후 서구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해 온 패러다임으로서의 객관주의적 인식론<sup>7)</sup>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 변환기에 인지이론의 한 형태로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sup>8)</sup>

따라서 객관적인 지식 관에서 구성주의 지식 관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속에 들어있는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전개한다.

---

이성비판》, 《판단력비판》 3권의 비판서는 순식간에 전 독일의 대학·논단을 석권하였고 인간학적 형이상학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 4) 인식론은 진리와 지식의 근거 및 본질 즉 앞의 의미를 밝히려는 철학적 노력이다. 절대론은 참다운 진리, 지식이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상대론은 진리, 지식이 개선가능하며 상대적이라 보는 입장이다. 회의론은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며 자명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 5) Giambattista Vico. (1668~1724), 이탈리아 철학자. 데카르트 철학에 반대하여, 사유(思惟)가 아니라 행위에 진리의 기준을 두었으며, 이 때문에 자연에 관한 학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인간역사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 6) 근대 서구 철학을 지배해왔던 객관주의적 인식론 혹은 이분법적사고(이성과 감정, 주체와 대상, 현상과 본질, 재생과 원본, 현실과 가상 등)에서 벗어난 지극한 문화, 사회, 경제적 토대로 여겨왔던 범주, 가치 등의 탈 정당화(decomposition), 탈 분산화(decentralization)를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 계층, 국가, 민족들에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화한다. 강인애, “문제 중심 학습 또 하나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모형”,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p. 214.
- 7) 절대적 진리와 지식의 추구,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33.
- 8)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6-17.

## 1) 인식론의 변화

지금까지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객관주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과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지식위주, 암기위주의 교사 주도적 강의식 교수법이나 시범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객관주의에 근거한 단순 개념 획득, 사실 암기 등의 낮은 지식의 전달을 강조한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고등정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이 구성주의 교육이며, 구성주의는 후기 산업사회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1950년대 이후 서양의 인식과 사고를 이끌어 오고 있는 중요한 인식론 중에 하나이다.

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 지식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 내적으로 구성되는 실체로서 인식의 주체와 독립적으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비되는 객관주의 인식론에 관해 잠깐 언급하자면,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식론일 것이다.

따라서 객관주의 인식론과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객관주의는 현실을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고 규칙과 규범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보며 수업 설계에서도 수업 전에 가능한 세밀하고 자세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본다.

진리나 지식은 범우주적인 만큼 학생 당사자가 아닌 수업설계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선택된 것은 당연히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수업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구성주의에서는 진리나 지식은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는 개인의 인지적 작용의 결과인 만큼 주관적인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며 교사나 수업설계자들에 의해 미리 결정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습목표라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교사는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습목표는 학생 스스로 수업을 진행해가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게 된다.

또한 평가의 경우도, 수업과정 전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sup>9)</sup>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교사의 권리가 학생들 스스로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된다.

지식에 있어서도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에는 차이점을 갖는다.

객관주의에서의 지식이란 고정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고, 그것은 역사적·문화적·시대적인 제약을 벗어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9)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9-20.

따라서 최종목표에 있어서도 초역사적·초공간적·범우주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며 우리의 현실을 가능한 그 진리의 모습에 맞추어 (correspondence)가는 것이다.

이런 고정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진리가 존재하는 현실은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것이며 규칙이나 방법으로 규명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이란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즉, 개인은 어느 특정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그 사회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적 요소와 역할을 강조하고 지식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다.<sup>10)</sup>

정리하면 객관주의에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지식에 대한 시각으로 지식을 인식주체와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의 사고는 외부의 실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최종목표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 학습자이며, 교수 학습의 목표 또한 교사가 일반적으로 제시한다.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평가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지식이 인식주체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사고는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므로 교육의 최종목표는 개인이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학습자이다.

---

10)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6-17.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안내하며 지식의 촉진자, 공동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해진 교육과정은 없으며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구성활동을 강조하고 질적 평가와 형성 평가를 강조한다.

결국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는 각 패러다임의 지식과 현실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차이점에 대해 <표 1>에서 분류하였다.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차이점<sup>1)</sup>

구분	객관주의	구성주의
지식	*초역사적, 초공간적, 범우주적인 성격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지는 것
지식의 특성	*고정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	*특정 사회, 문화, 역사, 상황적 성격의 반영과 구현
현실	*규칙적으로 규명가능하며 통제와 예측이 가능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독특함을 지니고, 예측이 불가능
최종목표	*모든 상황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와 지식의 추구	*개인에게 의미 있고 타당하고 적합한 것이면 모두 진리이며 지식 (Viability)
주요용어	*발견 (Discovery / Find) *일치 (Correspondence)	*창조 (Creation) *구성 (Construction)
교육학습 원칙	*추상적인 지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모든 지식을 수업 이전에 미리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을 제공 *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p>세밀한 계획에 따라 구조화, 순서화, 체계화하여 제시</p> <p>*교사와 학생의 역할 : 지식의 전달 자와 습득자로서의 관계</p> <p>*개별적 학습 환경 : 개인과제, 개인 활동, 개인의 성취와 중요성 강조</p> <p>*지식의 암기와 축적</p>	<p>제시하여 인지적 도전을 유도</p> <p>*모든 지식과 과제는 항상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다루는 과제는 실제로 사회에 대면하게 될 성격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p> <p>*교사와 학생의 역할 :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언자, 촉매자로서의 교사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학습주체로서의 학생의 역할</p> <p>*협동학습 환경 :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의 습득, 지식의 전이성 강조</p>	
<b>설 계 와 분 석</b>	<p>*누가</p> <p>*언제</p> <p>*어느 만큼</p>	<p>*수업설계자/교사</p> <p>*수업 전</p> <p>*세분화, 순서화, 연계화</p>	<p>*학생 개개인 스스로</p> <p>*수업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p> <p>*전체적 학습목표만 설정</p>
<b>수업평가</b>	<p>*누가</p> <p>*언제</p> <p>*형태</p>	<p>*수업설계자/교사</p> <p>*학습목표 설정과 동시에 설계한 뒤</p> <p>맨 나중에 실시</p> <p>*객관적 평가</p>	<p>*학생 본인, 동료학생, 그리고 교사</p> <p>*수업하는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수행</p> <p>*다양한 형태 (객관식, 주관식, 관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저널 등)</p>

11)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6-18.

## 2)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어떤 이론이든 그 시대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산업시대에는 효과성·효율성의 원칙, 그리고 통제와 예측이라는 대원칙 하에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정보화시대에서 요구하는 특성은 다른 어떤 이론보다 구성주의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다.

구성주의에 관한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바탕의 이유는 사회에서 알고 있는 전반적 모습과 연관성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근대 서구 철학을 지배해왔던 객관주의적 인식론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사회·경제를 토대로 여겨왔던 가치의 탈 중심 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는 서로가 어우러져 우리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다음은 <표 2>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특징비교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이 결국에는 교육에도 미치게 되어 새로운 교육환경, 체제, 질서, 교사와 학생간의 새로운 관계 등이 논의됨으로써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인문학의 전통에서 파생되어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설명하고 예언 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의미를 창안하고 감상하고 해석하거나 음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구성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표 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특징 비교<sup>12)</sup>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 문예부흥에서부터 자본주의 발전사	*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반자본주의 경향
* 철학 : 실증주의	* 철학 : 현상학, 해석학, 신 마르크스주의
* 전제 -지식절대성(전통적 지식 관) -미래예측가능성 진보성 -독립적 개인	* 전제 -지식상대성(구성주의 지식 관) -미래불확실성 -합리적, 독립적 개인 존재할 수 없다
* 선형성(직선적),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과학성, 경험성 등	* 다양성
* 산업사회	* 정보화 사회
* 학교교육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사회
* 공급자중심 교육	* 수요자중심 교육
*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 지방분권적 교육과정
* 국가중심 교육과정	* 학교중심 교육과정
* 공급자중심 교육과정	* 선택중심 교육과정
* 수업강조	* 학습강조, 협동학습, 자기주도 적 학습, C M C
* 상대평가	* 수행평가
* 교사는 지시자	* 교사는 조연자, 안내자, 동료학습자

12) 구평희, 「교육학」(서울 : 신수서원, 2006), p. 118-119.

리오타르(Liotard, 1702~1789)<sup>13)</sup>는 포스트모더니즘을 20세기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변화된 규칙’ 또는 ‘삶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그 특성을 한마디로 ‘전체성과의 싸움’으로 설명한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보다 절대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의 우연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지적·도덕적 권위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설명체계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sup>14)</sup>

이러한 모더니즘적 사고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신념체계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배경,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한 수업을 전개 하도록 해야 하고, 교수-학습에서의 절대적이고 보편성의 성격을 지닌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학습자 중심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며,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인해 구성주의에 이르러서는 교사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탈 중심화가 일어나 학습자간 또는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지식의 생산자로서 지식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을 자신에게 맞는 실제의 구성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 중심적 학습 환경

---

13) Etienne Liotard. (1702~1789). 스위스의 화가. 주요작품 《초콜릿을 나르는 여인》.

14) 조화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한국 교육이론의 과제”, 「교육철학 제 11호」, (교육철학 연구회, 1993), p. 6.

15) 조화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한국 교육이론의 과제”, 「교육철학 제 11호」, (교육철학 연구회, 1993), p. 10.

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2. 구성주의 측면에서 본 교육의 유형

현대는 다양한 구성주의 이론들이 공존하며, 교육적 상황을 고려한 교수-학습 영역에 이르기까지 구성주의의 시대정신이 계속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을 구성주의 부류의 연속선상에서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피아제(Piaget, 1896~1980)<sup>16)</sup> 중심으로 한 인지적 입장과 비고츠키(Vygotsky, 1896~1934)<sup>17)</sup>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sup>18)</sup>

### 1)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

피아제는 인간의 지식의 본질을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인지’를 특히 강

---

16) Jean Piaget. (1896~1980), 스위스 심리학자. 어린이의 정신발달, 특히 논리적 사고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식론의 제반 문제를 추구하였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임상 법에 있으며, 정신병 환자의 임상진단방법을 응용하여,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이의 사고과정의 하부구조를 밝혔다.

17) L. S. Vygotsky. (1896~1934), 러시아의 심리학자이며 기호학자.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인간 이해에 있어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18)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p. 143.

조하였는데, 그는 생물학에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를 발전시켜가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인간의 인지발달에 적용시킴으로써 인간도 환경의 요구에 따라 지식들을 획득, 확장, 심화시켜 나간다는 발생학적 인식론을 제시하였다.

즉, 피아제는 인지발달(도덕성, 언어, 정서발달 등)은 인지발달에 의하여 주도되며 인지발달은 유전(적응의 주체)과 환경(적응 대상으로서의 객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능동적인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부세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다. 19)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적응(인지구조)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기능에 의하며, 이 두 기능의 상보적 진전에 의한 ‘평형화(equilibrium)’ 과정에 따라 이전의 구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지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서 ‘동화’, ‘조절’, ‘평형화’라는 용어는 생물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피아제는 이들 용어를 인식론적 개념으로 수용한다.

‘동화’는 유기체가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는 동안 여러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화학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영양분을 흡수하듯, 유기체 내부에 맞게 외부요소를 변형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것이다. 즉, 인지적 동화는 개인이 외부의 새로운 사태를 자신의 기존 인지구조에 통합시킴으로써 적응한다는 것이다.

---

19) 이옥형 외, 「교육심리학」, (서울 : 집문당, 2000), p. 79.

‘조절’은 소나 양의 위치럼 진화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위를 변형시킴으로써 적응하듯, 동화로써 적응되지 않을 때 유기체 자신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조절은 새로 부딪친 외부의 대상이 기존의 인지구조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인지구조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인지구조를 필요에 맞게 변형·재구성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것이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인지구조’가 적응하는 구조라고 하면, ‘동화’나 ‘조절’은 적응하는 기능 혹은 과정이며, 인간의 인지구조가 변화해 가는 것은 바로 유기체가 자기 조절을 통한 ‘평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지구조는 학습자 내부의 상태와 환경적 압력간의 ‘평형’을 찾으려는 학습자 자신의 ‘동화와 조절’ 활동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지면 다시 동화나 조절이 나타나 균형을 깬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꾸며서 깨진 균형상태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화와 조절, 그리고 누적적인 정합과 종합에 의해 인지적 구조는 성장하고 발달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과 새로운 정보간의 불균형은 그를 불안하게 하는 인지갈등(cognizance conflict)의 상태를 조성시키는데,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인지적 평형을 갖기 위해 인간은 완전한 마음의 안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상태를 추구하게 되며, 평형상태가 얻어지면 그 전보다 더 높은 인지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sup>20)</sup>

---

20) 이경후, 「교육의 기초를 위한 J. Piaget의 인지발달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p. 18-19.

즉 학습을 경험에 의해서 촉진되는 인지 발달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에 따른 학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 가능성과 학습 효과는 학습에 선행하는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가 결정한다.

둘째, 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반성적 사고에 의한 논리 수학적 지식은 학습자가 내면에서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학습은 적정 수준의 인지 갈등에 의해 유발되고 지식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내용은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와 적정량의 상위를 유지하여 인지 갈등을 지속시키도록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되고 변화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진정한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발견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자가 발견하는 것은 물리적 지식이며 인지 갈등의 각성을 통한 자발적인 발견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충분한 하위단계 학습이 상위단계 학습에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형성된 인지 구조가 같은 수준의 다른 인지 구조와 결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면에서 이들 구조를 적용시켜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sup>21)</sup>

즉,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에서의 학습은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기존 인지 구조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반성적 사고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지 구조의 재 평형 상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

21) 변창진 외, 「인지 발달론 적 접근 교육심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p. 86-90.

자신들의 생각을 실험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교육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2)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

피아제가 개체발생의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비고츠키는 인간의 필연적인 사고 전개 과정으로 볼 때 개체 내적 발달과 개체 외적 발달을 통합하는 변증법적 발달 이론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sup>22)</sup>

비고츠키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인간의 정신기능(인지구조)은 독립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적·제도적으로 상황적이라는 것이다. 즉 피아제가 주장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인간의 인지발달이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의 내면화에 의해서 일어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 이론도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나, 인지적 구성주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비 객관성의 원리를 수정·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가인 비고츠키의 발달 심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고츠키는 인간과 환경의 교류에 있어서 조정(mediation)이라는 개념을

---

22) 변창진 외, 「인지 발달론 적 접근 교육심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p. 98.

도구뿐만 아니라 기호(sign)의 사용에 접목시켰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언어나 글 또는 수 체계와 같은 기호 체계(sign system)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성립하였으며,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가인 비고츠키의 발달 심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교 23)

유형 관점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적 발달 기원	* 머리 속	* 사회관계에 참여하는 개인
학습이란?	* 극적인 인지적 구조이 재편성	* 관련 공동체에서의 문화적 동화
최종목표	* 개인 경험의 사회·문화적 타당성 검증	* 개인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문화적 관습 습득
이론적 관심	* 개인의 인지적 발달 과정	* 사회·문화적 동화 과정
분석내용	* 사회적 상황에 의거한 인지적 재구성 과정	* 관련 공동체에 참여를 통한 사회·문화적 행동양식 습득 및 동화과정
수업환경	* 교사와 학생간의 문화조사	*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는 학습교육의 실태조사
그룹간의 환경	* 상이성 강조	* 동질성 강조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가인 비고츠키의 발달 심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고츠키는 인간과 환경의 교류에 있어서 조정(mediation)이라는 개념을 도구뿐만 아니라 기호(sign)의 사용에 접목시켰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언어나 글 또는 수 체계와 같은 기호 체계(sign system)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성립하였으며, 또한 사회 형태 및 그 사회의 문화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과 더불어 성립하였다. 또한 문화적으로 발생된 기호 체계를 내면화하는 것은 행동의 변형을 가져오고, 개개인의 초기와 후기의 발달 형태를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한다. 즉 개개인의 발달적인 변화는 사회와 문화에 기초한다고 하였다.<sup>24)</sup>

비고츠키는 인지발달의 또 다른 가능성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 P D)’이라 불리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현재의 발달영역과 잠재적 발달 영역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할 영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 도와 줄 경우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고츠키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들은 개인의 학습 활동을 사회 문화적 활동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중시하고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학습 활동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갖는

---

23)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72.

24) 황윤한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 문음사, 1999), p. 55-57.

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식이란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의 객관주의적 인식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아제를 비롯한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을 결정론적 인지발달 이론이라 비판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와 인지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객관성의 의미를 수정하고 그것을 주관적 독립성이라는 의미에서 상호 주관성의 의미로 수정하여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른 지식의 객관성을 주장한다.

둘째, 객관적 지식이 확보되는 과정은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사회 속에서 협의의 과정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 객관성을 인지적 구성주의자들과 다르게 해석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공통 주관적인 ‘합의’의 개념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객관성을 해석한다.

따라서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이 주관 독립성을 객관성으로 보는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공통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 공통 주관적인 의미의 객관성을 ‘합의성’, ‘사회성’, 또는 ‘협동성’ 등으로 표현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비 객관성의 원리를 수정·보완하였는데 여러 가지 교수·학습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

은 객관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함으로서 구성주의 이론을 무리 없이 시도하고자 노력해왔다.<sup>25)</sup>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이란 인간이 사회적 행동들을 확인하고 교실 활동들을 설계하는 활동의 공동체로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보다 고차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되며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의 담론의 형성을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중재 도구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학습자 주위의 인적 자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학습자의 적절한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인지 발달을 중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유능한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학습에서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의 적절한 중재에 의해 인지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26)</sup>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지식이 적용되거나 강화되는 과정의 필수요소이며 개인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토대를 형성하므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구성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의 가능성을 활용한 교육과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해 주고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학교 밖의 경험과 관련 되도록 해

25) 박영배, 「수학교수학습의 구성주의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p. 31-34.

26) 황윤한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 문음사, 1999), p. 55-57.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지적 구성주의 교육과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을 통하여 구성주의 교육의 유형에 대해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들 간의 차이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역할,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으며 더 나아가 ‘주관적/내면적으로 형성된 지식구조’와 ‘사회를 매개로 하여 구성된 지식’을 두개의 분리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하는 가 혹은 이들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가에 따라 각각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본다.<sup>27)</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론 간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이들 관점간의 차이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다양성을 수용하여야 한다.

---

27)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81.

### Ⅲ .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열린 교육

정보사회의 교육적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가르치는 교사중심에서 배우는 학생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다른 말로 교수(instruction)에서 학습(learning)으로의 변화라고도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혁명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대변해 주고 그 실천적 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이다.<sup>28)</sup>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 보다는 왜 꼭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비중을 두고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 방향을 설정해 준다.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이며 선택적인 구성주의는 또한 다양한 형태와 상황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해결을 키우고자 한다. 그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토대로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 상황과 교육내용, 교육 방법을 급진적으로 바꾸기를 요구하며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이 실제로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기대 효과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미술과의 총괄 목표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이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7차 미

---

28)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p. 15.

술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들어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배경으로 미술교육에 있어서 열린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1.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의 연계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강조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말한다.<sup>29)</sup>

미술 수업은 교사 중심의 직접적인 학습 내용의 전달보다는 학생 중심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보는 기본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학생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하는 학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그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나, 기법, 재료의 선택 등에 있어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주며, 교사는 제한·비판이 아닌 권유, 수용, 고무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미술과의 성격에서 구성주의적 성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미술과 학습의 구성주의적 접근에 타당성이 있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미술은 다양성과 호기심, 개성을 인정하면서

---

29)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미술- (교육부고시, 1998), p. 183.

학생 각자의 방법으로 개개인의 맥락에 의해 자기 나름의 학습으로 전개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등의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교과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적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계획에 의하여 획일적인 방법이나 의도대로 개인별 표현 활동에 치중하거나 소집단 학습이라 하더라도 공통 사고 활동이 배제된 단순 소집단 표현활동에 그치는 미술학습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탐구활동을 통해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공동 사고활동을 통한 미술 학습이 마련되고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0)</sup>

전통적인 교육에서 지식은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즉, 학습자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을 사실 중심의 교육 과정이 지닌 무미건조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큰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며, 흥미의 길을 따라가고, 관계를 맺고, 아이디어를 제공식화 하여 독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쾌한 힘을 학생들의 손에 쥐어준다.

마지막 단계인 학습의 평가 과정에서도 쉽게 다루어지지 않고 모호하고 번거로운 노력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고한다.<sup>31)</sup>

30) 최미경,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구성주의적 미술 학습 모형의 개발”, 「사향 미술 교육논총 9」, (한국 미술 교과교육 학회, 2001), p. 173.

31) (Jacqueline G Brooks & Martin G brooks,1993), 추병환·최근순 공역,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종합해보면 미술교육에서는 창작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미적 인식과 비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미적 체험 활동과 감상 활동의 비중을 높여가야 하며, 창작 활동만을 강조한 교수-학습 유형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그리고 학습자의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교수-학습 방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미술교육의 본질이 미술을 통한 인간 교육인 만큼 이것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구성주의가 개별적 특성을 지닌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에게 강한 의미가 있고 적합하며 타당한 것이면 그것을 진리요, 지식이라고 보고 이런 지식과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요소가 그 과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기본 원리와 상통한다. 즉, 정서적으로 풍부하면서 21세기의 시대적 혼돈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능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조형성을 지닌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중심, 아동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바로 구성주의에서 요구하는 학습 원리요, 학습 방법이며, 그 특성을 함유하고 있기에 구성주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 미술교육은 불가한 것이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학습자의 표현 및 감상능력, 창의성, 심미적인 태도 함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방법과 객관적인 기준안 및 개념화된 원리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

(서울 : 백의, 1999), p. 37.

## 2. 구성주의와 열린 교육 가능성

열린 교육 학습의 특징은 대체로 구성주의 교육관이 보여주는 특징과 상당히 비슷하다.

구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이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개인적인 인지 작용의 결과로 보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교사에게 집중되었던 수업의 주도성을 학습자에게 이양하는 탈 중심 화를, 나아가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부여를 지향한다고 하였다.<sup>32)</sup>

‘예술, 미학 분야에서 구성주의가 함축하는 바는 탐구하는 것의 진리가 어떤 객관적 사물의 실체에 대응한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sup>33)</sup>

따라서 구성주의는 미술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각기 다른 인식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함께 형성해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미술 교육이 추구해왔던 다양성, 개성, 창조성, 확산적 사고의 형성, 조화와 통일감 등이 그것이다.<sup>34)</sup>

또한 구성주의에서 교육은 교사에게 형성되어 있는 지식의 체계가 학생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어야만 지식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며 또한 그러한 과정

---

32) 인치도, 「미술감상 수업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 8.

33) 황향숙, "미술교육에서의 인지적 교수-학습 방법 환경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경", 「미술교육 제8호」, (한국 미술 교육학회, 1998), p. 38.

34) 황향숙, "미술교육에서의 인지적 교수-학습 방법 환경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경", 「미술교육 제8호」, (한국 미술 교육학회, 1998), p. 40-41.

이 곧 학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기를 요구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의 방법과 종속 요소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그 사회와 시대, 문화의 반영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지고 변화한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sup>36)</sup>

첫째, 학습은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이 곧 발달이다.

둘째, 불균형이 학습을 촉진한다.

셋째, 반성적 추상이 학습의 원동력이다.

넷째, 학습은 원래 사회적, 대화적 활동이다.

다섯째, 학습은 구조의 발전을 지향한다.

여섯째, 학습은 상황에 기초하여 일어나므로 풍부한 맥락, 실세계의 상황이 반영된 실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은 구성적, 능동적 과정이다.

여덟째, 학습은 도구와 상징을 통해 촉진된다.

아홉째, 인간의 궁극적인 성취는 삶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결국 학습은 그것이 기초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과 실제의 상황이 중요하며,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토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교육에 반영하려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35) 한국 미술 교과학회, 「미술 교육이론의 탐색」, (서울 : 예경, 2003), p. 18.

36) C. T Fosnot, 「Inquiring Teachers, Inquiring Learner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89)

열린 교육의 학습과정에서도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학습, 통합된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열린 교육과 구성주의는 많이 비교되며, 어떤 연구자들은 열린 교육이 내세우는 학습과정에 대한 관점은 구성주의와 거의 일치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또한 열린 교육의 실천 안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구성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학습 환경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주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교사 중심의 교육형태에서 학생을 수업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사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무비판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성주의와 열린 교육, 전통적인 교육을 비교한 표이다.

<표 4>에서와 같이 열린 교육의 학습관점과 구성주의 학습관점은 매우 유사하며,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이다.

이처럼 구성주의적 관점은 학습자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교육은 그것이 처한 인지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열린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성주의가 요사이 강조되고 있는 열린 교육이라는 교육개혁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그 같은 배경으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전통적인 교육, 열린 교육, 구성주의의 비교<sup>37)</sup>

전통적인 교육	열린 교육	구성주의
교사중심	학생중심	학생중심
일제수업	소집단·개별학습	소집단·개별학습
교육과정과 교과 중심	문제중심·생활중심· 문제중심	문제중심·문제중심
단순한 학습자료	자발적·적극적	능동적
학습중심	다양한 학습자료	다양한 학습자료
	인간중심	인간중심

37) 이영만, 「통합교육 과정」, (서울 : 학지사, 2001), p. 203.

## IV . 미술교육 변화의 방향

### - 열린 교육

교육은 의도적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므로 21세기에 전개될 민주화, 다양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간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에 걸 맞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린 교육의 시도이며, 이것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움직임으로 교육이 학교중심으로 가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념의 변화는 교수 학습활동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과거의 전통 학습방법보다 진보적 교육개념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1 . 열린 교육의 의미

열린 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하버드대학의 버드(R. S. Birth, 1972)이며, 공식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뉴욕대학의 웨버(L. Weber, 1971)로서 1970년대 초 'Workshop Center for Open Education'이라는 연구소 설치와 함께 사용되었지만, 열린 교육의 개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의미로 쓰기 시작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열린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의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다른 해석으로는 ‘열린’과 상반되는 말로서 ‘닫힌’을 들 수 있겠는데, ‘닫힌’이란 말이 경계, 획일화를 의미한다면 ‘열린’은 그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열린 교육이란 지금껏 ‘닫혀있음’으로 인해 여러 병폐를 야기한 학교교육의 규정된 양식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기대해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니퀴스트(E. B. Nyquist, 1972)는 “열린 교육은 하나의 교수 접근 방식으로 전통적인 학교 교실의 배치와 교사·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비형식적이고 고도로 개별화된 아동중심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sup>39)</sup>이라 했다. 슈테판(L. S. Stephen, 1974)은 “변화와 새로운 이상에 열려있고, 교육과정, 학교 일과, 공간의 사용이 개방된 교육이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학급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방식”<sup>40)</sup>이라 했으며, 호르위츠(R. A. Horwitz, 1979)는 “학습공간의 활용 면에서 융통성 있는 운영, 학습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교육과정은 대집단 수업보다 개별적 또는 소집단 수업으로 운영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교수양식”<sup>41)</sup>이라 했다.<sup>42)</sup>

---

38) 한국 열린 교육연구회·한국 초등 교육학회 공저, 「열린 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1996), p.24.

39) E. B. Nyquist, "A Source book for Parents and Teachers", 「Open Education」, (Ban tom Books, 1972), p. 84.

40) L. S. Stephens, 「The Teacher's Guide to Open Education」, ( Holt, Rin hart and Winston, Inc, 1974), p. 27.

41) R. A. Horwitz,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Open Classroo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9), p. 71-86.

예컨대, 열린 교육이란 학습의 본질과 아동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태도, 열린 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사교육, 열린 공간·혼합연령구성·팀티칭과 같은 교실상황, 지시자가 아닌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행동, 학습목표 설정과 자기평가와 같은 아동 행동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로서 개념화되고 조직화된다고 하였으며, 탄력적 교육과정, 열린 인간관계, 열린 학습 집단, 열린 교육 공간, 열린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열린 교육에서 열렸다는 의미를 넓게 트인 공간,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탄력성 있는 학습 집단, 트여진 인간관계, 열린 마음으로 보기도 했다.<sup>43)</sup>

이러한 정의들은 열린 교육의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며, 모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을 말하며,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는 열린 교육은 대체로 학생 중심의 교육이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학습활동은 학생의 개별적인 관심과 선택에 따라 추구하는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행위자임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 흥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주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수업을 주도하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열린 교육에서는 학생 각자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함으로써 학생의 개성 또한 개인차에 따른 지도방법과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개별화, 개성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각각의 수

---

42) 이정선, 「왜 열린 교육이어야 하는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7), p. 38-40.

43) 유광찬, 「통합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 118.

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생의 흥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서 존중해야 하는가, 학생의 관심사와 수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학생들 각자가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인 교육 여건 하에 한명의 교사가 아이들의 흥미와 개별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개별화된 수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한 모색은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열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다. 교사는 주위 세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는 무조건 학생들에게 수업의 내용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 . 열린 교육의 필요성

문화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구성주의 시대, 다가치의 시대, 다원성의 시대인 지금은 서로의 존재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개인차를 인정해주면서도 변화와 경쟁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일이며, 변화에의 적응력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핵이 되는 것은 안목과

문제해결능력일 것이다. 안목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 자기 학습력을 길러야 한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획일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으로 창의성과 도덕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교육 개혁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교육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경쟁력 있는 능력인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라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지구촌 시대는 경쟁을 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조적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는 인간적 감수성이라거나 폭넓은 개방성 그리고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즉 자기 주관이나 개성에 따른 현명한 선택 역이 요구되며,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린 사람을 기르는 인간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의 주체인 일선학교 교사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교육은 이제 가르치는 것 중심에서 배우는 것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배우는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하 한다는 것이다.<sup>44)</sup>

---

44) 은용기, “열린 교육의 필요성”, 「열린 교육의 이해」, (서울 : 양서원, 1996), p. 14.

무한 경쟁의 정보화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새 시대 교육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같은 내용을 배운다 해도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학습 방법으로는 그 효과가 없으며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열린 교육은 ‘열린’이란 의미에서 알 수가 있듯이 기존의 교육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한다. 그리하여 명목상으로만 주장되던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교육,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중시하며 최대한 학습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을 주장한다.<sup>46)</sup>

열린 교육을 해야 하는 까닭은 학습자는 인간이며,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자유로운 학습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독립적이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는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질적인 경험을 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열린 교육이란 한마디로 학습자에게 학습 권을 부여하여 자아실현 인이 되게 하는 개방적인 학습과정이며 그러기 위해 교육의 제 여건 즉 시설, 조직, 학습 자료와 학습활동이 융통성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

즉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는 한마디로 융통성 있는 인간상이 요구된다. 종래의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창의력 있고 개성 있는 인간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 해결하고 처리하는 자율 인이 요구된

45)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p. 121.

46) 김은산, “열린 교육의 세계적 동향”, 「교육철학 제 11호」, (한국 교육학회 교육철학 연구회, 1993), p. 163-166.

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 기술, 문화 등을 학습자 머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였지만 이제는 얼마나 가치 있고 우수한 지식과 정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열린 교육에서는 전인, 또는 자아실현 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지적인 능력의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며 행동하는 전인적 존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시시각각 변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지(知), 정(情), 의(意)가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로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 인간이라 하겠다.<sup>47)</sup>

결국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고 기억하는가 보다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구성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열린 교육의 필요성이다.

### 3 . 열린 교육을 통해 본 미술교육의 방향

열린 교육에서는 미술 활동을 기본적인 학습 경험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술이나 다른 과목 등 학생의 창의적 활동을 쉬어가는 과목이나 구색만을 맞추기 위한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예술 활동은 학습자들의 전인적 교육목표와 일치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

47)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p. 122.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다양한 흥미와 관심분야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미술은 다른 모든 교과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나 활동과 통합시켜 수업할 수 있다.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이나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여 그림이나 입체 재료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수학에서의 도형이나 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미술시간에 만든 것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기관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세부표현을 할 수도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

미술교육에서는 또한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미를 느끼고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그것은 전문가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수준에서 느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sup>48)</sup>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은 학습자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술의 여러 형태에 민감해질 때 저절로 길러지며, 자연환경에서도 미술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나아가서 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창의성을 기르며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미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냥 그리고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리게 하고 느낌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어린이에게 미술에 관련한, 자신의 표현에 대한 견해를 많이 발표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데서 시작한다.

---

48)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p. 134-136.

이런 관점에서 미술과 수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흥미, 개인차, 개성 등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으로 하는 미술과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둘째, 미술수업의 축을 학습자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 열린 교육에 따른 미술수업의 접근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학습방법’으로 어린이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셋째, 미술수업 시간에 학습자에게 주제, 재료, 공간을 개방한다.

넷째, 미술지도에서 특히 발상과 감상단계를 중요시한다.

다섯째, 미술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여섯째, 수업시간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한다.

일곱째, 열린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미술과 수업에서 교사는 아주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적극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sup>49)</sup>

즉, 열린 교육을 통해 본 미술은 학생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미적 정보를 자신이 선택한 재료와 방법, 양식 등을 통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무엇보다 활발한 사고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며, 감상을 중요시 한다.

또한 열린 교육에 따른 미술과 수업에서는 교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 각자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해주는 적극성과 열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열린 교육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못했을 때, 산만하고 방임적인 수업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교사는 모든 상황을 미리 내다

---

49)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p. 136-139.

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0)</sup>

지금도 10년 이상 미술 교육을 받고서도 미술을 모르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재능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방임에 가까운 무조건적인 표현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미술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며 감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개성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다음은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 알아본다.

첫째, 더 이상 미술수업은 교사의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교사가 파악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하게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미술 교육에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다.

미술 또한 타 교과 또는 다른 지식과 같이 그것이 처한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떠나서 존재하는 미술은 고립된 미술이요, 죽은

---

50)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p. 134-139.

미술이다. 따라서 맥락에 대한 강조는 학습자들의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미술과 삶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마련해 줄 것이다.

셋째, 구성주의와 통합 교과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상호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이다. 미술수업에 있어서 이전의 미술은 개인의 창작과 감상만을 중요시했다면, 열린 미술 교육에서는 미술을 이해하는데 동료 학습자와 교사,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등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협력학습을 통해 좁게는 현재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부터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것이다.

넷째, 열린 교육에서는 실제적인 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습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소집단별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며,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sup>51)</sup>

이 외에도 우리가 열린 교육의 학습 원리를 미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미술교육을 열린 교육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미술교육의 본질에 어긋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열린 교육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부정의 소리도 크고, 오로지 교사들의 부담감만을 늘였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열린 교육이 내세운 학습 원리들은 우리의 미술 교육이 열린 미술, 삶과 하나 된 미술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

---

51) 최미경,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구성주의적 미술학습 모형의 개발”, 「사향 미술 교육논총 9」, (한국 미술 교과 교육학회, 2001), p. 73-74.

사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인 뒷받침을 다졌다면,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주체로는 무엇보다도 교사교육과 제도적인 개선이 중요하겠고, 열리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및 실천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 V . 결 론

본 연구는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을 제시하였다.

미술교육은 현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를 배경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절대적 관점보다 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은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지식을 형성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은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존중하여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활발한 사고활동을 유발하는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반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상황과 실제적 성격의 과제를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 이론을 기초로 한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능력이나 개성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미술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총괄목표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미술은 삶의 한 맥락으로서 삶과 동시에 일어나고 미술을 아는 것과 미술을 통해 아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야 하며, 미술교육의 내용도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지도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담당자나 현장

교사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미술교육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열린 미술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요소는 우리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미술 전문가를 위한 미술 교육 뿐만 아니라 미술소비자 양성을 위한 학습자 존중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실질적인 감상 교육의 강조,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교과와의 통합과 협동 학습의 중요성, 자기 주도적 학습 등으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다.

이처럼 열린 교육의 실천 안들을 살펴보면 구성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 열린 교육의 실현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가 대부분의 서술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만 최근 미술 교육계에서는 방법론과 구체적인 학습 지도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그 결과물 또한 많이 나오고 있어, 그것들을 실제교육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미술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된다.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로 새로운 세대에 맞는 미술교육이 실제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 미술 - (교육부고시, 1998)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1997)
- 강인애, 황 윤한 외 7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서울 : 문음사, 1999)
-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 이옥형 외, 「교육심리학」, (서울 : 집문당, 2000)
- 이영만, 「통합교육 과정」, (서울 : 학지사, 2001)
- 이정선, 「왜 열린 교육이어야 하는가?」,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 유광찬, 「통합교육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 변창진 외, 「인지발달론 적 접근 교육심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 추병환·최근순 공역,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서울 : 백의, 1999)
- 한국 미술 교과학회, 「미술 교육이론의 탐색」, (서울 : 예경, 2003)
- 한국 열린 교육연구회·한국 초등 교육학회 공저, 「열린 교육의 이해」, (서울 : 양서원, 1996)

## ◎ 간행물

김은산, “열린 교육의 세계적 동향”, 「교육철학 제 11호」,  
(한국 교육학회 교육철학 연구회, 1993)

전성수, “열린 미술 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미술 교육논총)

조화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한국 교육이론의 과제”,  
「교육철학 제 11호」, (교육철학 연구회, 1993)

최미경,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구성주의적 미술학습 모형의 개발”,  
「사향 미술 교육논총 9」, (한국 미술 교과 교육학회, 2001)

황향숙, “미술 교육에서의 인지적 교수-학습 방법 환경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경”, 「미술교육 제8호」, (한국 미술 교육학회, 1998)

## ◎ 학위논문

박영배, 「수학교수학습의 구성주의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이경후, 「교육의 기초를 위한 J. Piaget의 인지발달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인치도, 「미술감상 수업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국외서적

C. T. Fosnot, 「Inquiring Teachers, Inquiring Learners」 ,  
(N. Y : Teachers College Press, 1989)

E. B. Nyquist, "A Source book for Parents and Teachers", 「Open Education」 ,  
(N. Y : Bantam Books, 1972)

R. S. Barth, 「Open Education and American School」 , (N. Y : Schocken Book,  
Inc, 1972)

L. S. Stephens, 「The Teacher's Guide to Open Education」 ,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4)

# ABSTRACT

## Open Education in Constructivism theory

Yun, Hwa Kyung

Dept.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suggests the open education as the direction of art education in constructivism.

Society required current modernistic thinking and change of awareness becoming segmentation, specialization, great leap forward in scientific technologies gradually by scientific development since industry age. That is, change of paradigm following age made value important about learners' request and special quality causing much effect to educat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about learner's selection by learning of learner center in learning environment of teacher center.

**CHAPTER 2** was unfolded contents general consideration about Constructivism that was important core role in conversion of such awareness.

In Constructivism, knowledge is that individual composes things what he knows voluntarily through own experience unlike traditional theory of knowledge that knowledge is absolute, a person who recognize, agree with extrinsic substance. That is to say, the change of theory brought the necessity of constructivism theory from objectivism theory and the advent of post modern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context.

**CHAPTER 3** was performed to present relation of 7th Art. Course of Study and constructivism. As well as art subject includes Constructivism meaning, is subject that can apply well learning theory or studying principle. 7th Ar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carrying out the 7th education course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open education.

**CHAPTER 4** was approached about art education as open education to present direction of art education that go in gear with the 7th Art. Course of Study with constructivism age. Open education must be not pulling down classroom wall and teaching by different way, but being open mind about education and basic attention about learner. It seemed to very desirable phenomenon that education is going to student by actions that bring by one self's necessity. Change of this education concept brought much change to way form and method of professor-learning process and needed right understanding about open

art education.

However, some people said that actuality or the burden of teacher grows heavier in active education filed. However, that learning principles following open education is giving various suggestion standpoints are also tru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sent direction of open art education based on that with comprehension about Constructivism education Through development of various methodologies for right comprehension of constructivism art education and Constructivism education practice, teacher would be lively discussion and research and practice as open education.